자비와 법의 향기로 開山, 널리 알린다

〈개산〉

부산·경남 지역 사찰 다양한 행사로 개산대재 봉행

禪의 법석과 나눔의 자리로 불사 회향하며 정진 다짐 태풍 피해 복구 위한 지원 다채로운 전시·음악회 눈길



부산 경남 일대 사찰들이 개산대재를 봉행하고 개산조의 뜻을 널리 알렸다. 사진은 범어사가 의상대사 다례재를 봉행하는 모습.

청냉한 바람이 부는 가을, 부산 경남의 사찰들이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사찰들은 시민의 발걸음을 붙드는 문화제와 음악회, 그리고 법석을 마련했다.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더욱 풍성한 가을을 맞았다며 감사했다.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금강경오가해설의〉 서문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10월 13~15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열린 서문강의에서 방장 지유 스님은 직접 법을 설했다. 이어 15일 회향식에서 개산조인 의상대사 다례재를 봉행하고 부산불교 불자1000여명에게 개산의 참 의미를 전했다.

지유 스님은 "금정은 금빛 연못에 하늘의 물고기인 범어가 내려와 놀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며 "범어는 물들지 않는 마음의 법을 설명한 것이기에 제대로 알고 정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범어사는 개산대재 기간 동안 백미 20kg 100포를 인근 복지관에 전달했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개산 13주년을 맞아 대광명전 삼존부처님 복장봉안법회를 10월 16일에 봉행했다. 사부대중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지 심산 스님은 "불사를 마무리 한다는 말은 곧 출발을 한다는 뜻이다"며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시고 진심으로 함께 해주신 대중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홍법사는 이날 연합합창단의 공연과 오케스트라의 색소폰 연주 등 작은음악회를 열고 개산 의미를 축하했다. 또 10월 16일부터 제5회 가을국화축제를 열고 사찰 요리 축제 등을 준비해 찾는 이들을 반겼다. 사찰요리 축제는 10월 16일, 26일, 28일에 각각 진행됐다.

울산 백양사(주지 명본)는 지난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한 자리로 개산대재를 봉행해 더욱 의미가 깊다. 백양사는 10월 15일 경내에서 '개산 1084, 울산 천년을 품다'를 주제로 첫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개산대재는 개산조 백양선사의 부도탑 헌다, 괘불 영산재, 다도 시연, 전시 및 공연 등으로 진행됐으며 경내에 모금함을 설치해 수재민 돕기에 앞장섰다. 백양사는 울산 중구에 수해복구지원금 1000만원과 라면과 빵 등 천인분의 음식을 지원했다. 아울러 개산대재에서 모은 성금도 추가로 전달 할 예정이다.

창원 구룡사(주지 신공)는 음악과 문화를 위한 자리를 펼치고 지역민을 초대하고 창건을 기념했다. 구룡사는 10월 15일 경내에서 '창건 89주년 기념법회 및 가을 달빛 산사음악회'를 열었다. 구룡사는 법회에서 구룡은암장학금 2000만원을 수여했으며 음악회와 함께 어린이청소년 백일장 시상식, 바라밀 꽃꽂이회 작품전시회 등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동국대 이사 법산 스님, 구룡사주지 신공 스님, 박완수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 팔관회 천년의 역사를 잇다

다채로운 행사로 전통문화 시민들에게 알려



부산불교연합회는 10월 15~16일 범어사에서 팔관회를 개최하고 전통불교문화 수호에 앞장섰다.

부산 불교가 팔관회는 신라시대부터 내려온 한국의 고유문화임을 강조하고 호국의 의미를 널리 알렸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10월 15일~16일 범어사에서 '팔관회'를 개최했다. 팔관회는 신라시대 때부터 꽃피운 불교문화 축제로 부처님이 설하신 계를 강조하고 국태민안을 기원하던 행사였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매년 신라와 고려시대 호국불교의식을 재현하고 팔관회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다.

팔관회는 호국기원법회와 백희가무, 호국영령위령재, 팔관재계법회 등으로 진행됐으며 사진전과 닥종이 전시 등으로 행사에 풍성함을 더했다.

호국기원법회에서는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을 비롯해 원로 스님들과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 박대성 부산불교연합회 신도회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2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은 "오랜 시간 역사 속에서 잠들어 있던 팔관회는 그간 부산불교연합회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역사적 고증과 연구를 통해 오늘날 원형을 복원하기에 이르렀다"며 "오늘날 우리가 팔관회를 열어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것은 천년 세월에도 변치 않는 한국 불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상임부회장 무원 스님은 "부산 불교계가 우리 민족의 전통인 팔관회의 문화적 가치를 복원하고 그 정신을 되살려 나라와 국민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큰 문화불사를 앞장서서 만들어 가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는 11월 23일 오후 3시 범어사 보제루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하성미 기자

기림사 금강학림, 재가불자에게 문 활짝

'古文'으로 풀어 엮는 불교, 매월 4째 주 금요일



경주 기림사가 운영하는 한문불전 전문도량 금강학림을 재가자에게 개방하고 '고전학당'을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경주 함월산 기림사(주지 덕민)에서 운영하는 '금강학림'(한문불전 전문도량)이 재가불자들을 위해 활짝 문을 열었다. 이는 승가 중심의 한문불전 전문도량 기림사 금강학림을 재가자들도 함께 접하도록 돕고 깊이 있는 한문불전 연구에 함께 동참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기림사는 앞으로 '고문학당(古文學堂)' 템플스테이를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기간은 매월 4째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하며 일요일 오후 2시에 회향한다. 참가비는 10만원이며 템플스테이 일정 가운데 고문 특강만 참여할 경우 4만원으로 참가 가능하다.

고문학당 일정은 10월 28일 소동파의 적벽부, 11월 25일 두보의 율시, 12월 23일 왕유의 선시를 주제로 열리며 2017년 이후 일정은 차후 발표할 예정이다. 강사는 이 시대 대강백인 덕민 스님(기림사 주지)과 운암 스님(기림사 부주지)이 직접 나선다.

부주지 운암 스님은 "고문은 깨달음의 관점으로 자연을 담아 시로 노래하고 있다"며 "재가 불자들이 대상인지라 아름다운 내용으로 또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제를 이렇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지이신 덕민 스님은 불국사 학장으로 대강백이시다. 귀한 만남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템플스테이 외 금강학림 학사일정은 다가오는 11월 14일 동안거 입재에 맞춰 개강한다. 운암 스님은 "한문불전 전문도량 금강학림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깊이 있는 불전연구도량이 될 것이다"며 "템플스테이와 마찬가지로 승가뿐 아니라 재가자도 참여 가능하다"고 많은 관심을 독려했다.

하성미 기자

응공바라밀재 및 시니어 문화 축제



응공바라밀재 시연 장면.

대구 대응공사 자혜불교대학(학장 도경)은 10월 16일 대구 달서구 와룡공원 광장에서 와룡산 성서 개구리소년 실종을 위한 위령제와 노인의 달을 맞이 지역어르신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경 스님을 비롯해 해운정사 청명 스님, 곽대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어르신 2500여명이 참석했다.

격려사와 축사에 이어 3부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성서 개구리소년들을 위한 육법공양과 희신곡 바라춤 등이 이어졌다. 또 달서 어울림 마당으로 가요제 본선과 초청공연 다문화여성의 출산자금 보시금 300만원 전달 등도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은해사 개산대재 및 중악 은빛작은음악회



은해사 1208주년 개산대재 장면.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10월 15일 경내 대웅전에서 창건 1208주년 개산대재와 중악 은빛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개산 법요식에는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 관장 돈명 스님 대구카톨릭대 정홍주 신부, 경산성당 이창영 주임신부 등 2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돈관 스님은 "오늘의 뜻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면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인사했다.

회주 법타 스님은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통해 번뇌 망상에 사로잡힌 중생제도에 나서는 것은 물론 사회적 갈등 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하자"고 법문했다.

식후 중악 은빛 작은 음악회는 선화여고 관악부와 댄스부, 판소리, 무용으로 다채로움을 더했고, 저녁예불과 만등 점등식으로 팔공산을 밝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해인사 원당암 중양절 합동천도법회



원당암 중양절 합동천도법회 모습.

해인사 원당암은 10월 9일 중양절을 맞아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경내 원당에서 합동천도법회를 개최했다.

원당암은 40여 년전 前 조계종 종정 혜암 스님이 주석할 때부터 무명영가의 천도를 축원하는 법회를 열어왔다.

이날 원각 스님은 "자신의 참나인 본심을 밝혀 참 자유인의 삶에서 불국정토를 이루어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시민불교문화상 수상 후보 모집

창원불교연합, 향토문화예술인 위해 제정

창원불교연합회(회장 도홍)가 제26회 시민불교문화상 수상후보자를 모집한다. 시상 부문은 문학상, 예술상, 언론상, 행원상(지역봉사 및 개발 활동가)이며 후보자격은 경남 내 거주하고 해당분야에 10년 이상 전문활동을 펼친 문화 예술인, 언론인, 사회봉사자 등이다. 시상금은 각 부문 창작지원금으로 5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후보 추천 마감은 11월 10일로 발표는 시상 10일 전 언론을 통해 발표된다. 시상은 12월 19일 마산시보이호텔 5층 대연회장에서 진행된다. (055)222-1393

하성미 기자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53선지식 천일 화엄대법회

선재동자의 구도여정을 따라,
범어사에서는 매월 음력 초하루 '선지식'을
모시는 '53선지식 천일 화엄대법회'를 봉행합니다.



• 범어사 53선지식 천일 화엄대법회 3일 특강 안내

첫째날_ 11. 1.(음력 10. 2.) 불국사 덕민스님(불국사 승가대학장) 오전 10시부터
둘째날_ 11. 2.(음력 10. 3.) 범어사 무비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 오전 10시부터
셋째날_ 11. 3.(음력 10. 4.) 통도사 지안스님(조계종 고시위원장) 오전 10시부터

법회장소 : 범어사 보제루

• 53선지식 첫 법회 : 음 11. 초하루(양 11. 29.) 범어사 여천 무비스님 오전 10시부터

화엄 신중 천일기도 동참안내 — 범어사 53선지식 천일 화엄대법회'와 함께 대웅전에서 화엄 신중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 동참문의 : 051-508-3636(범어사 원주실)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